

“아햏햏”과 사이버 폭력

김은남 / 시사저널 문화팀장

오마 전 후배가 이메일로 사진 한 장을 보내 왔다. 사진에는 짙은 소꿉말이 붙어 있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개벽’ 사진이래요.” 개벽? 곧 허물어질 것 같은 담벼락에 난 구멍 사이로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왜 사진 제목이 개벽인지 그 심오한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직장 후배들에게 물어 보고서야 궁금증은 풀렸다. 후배들 말인즉 ‘개’가 ‘벽’에 고개를 내밀고 있어 개벽이란단다.

그러고서야 나는 이것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른바 아햏햏문화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아햏햏은 지난해 ‘엽기’ 열풍을 대체할 만한 올해 최고의 인기 신조어이다. 이 말의 어원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젊은 네티즌들은 기쁠 때건, 화날 때건, 이해할 수 없을 때건 무차별로 이 단어를 써 먹는다. 이를테면 좋은 영화를 봤을 때나, 반대로 형편없는 영화를 봤을 때 다같이 내뱉는 말이 ‘아햏햏한 영화’다. 개중에는 자신을 햏자라 칭하며 아햏햏수련을 권유하는 이들도 있다. “날마다 면(面) 컴 하고 클릭 3천배(拜)면 득햏의 경지에 이를지나.” 압호 같은 이들의 경구를 풀어쓰자면 다음과 같다. “날마다 컴퓨터와 대면해 3천 번 이상 마우스를 클릭하다 보면 새로운 도를 터득할지나.” 참 기발하고 맹랑하지 않은가? 도대체 이 친구들은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사라도 될 양 구는 것일까? 궁금했던 나는 노장(老莊)의 허무사상에 빚대 아햏햏문화를 규명한 한 문화평론가의 글을 읽으며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르면, 노자와 장자가 거짓 투성이 현실에 절망했듯 이들 햏자들은 난장판인 인터넷 문화에 절망하고 있다. 인터넷이 처음 활성화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중학생이나 시골 농부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자기 하고픈 말을 다할 수 있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아무런 구별없이 어울릴 수 있는 평등 세상. 사이버 커뮤니티는 아마도 그런 곳일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환상은 깨져나갔다. 지금 인터넷은 욕설과 자기 주장만이 난무하는 쓰레기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절망한 네티즌들이 아햏햏이라는 무의미한 언어로 인터넷의 무의미한 소음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 그 평론가의 분석이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세상만사에 초연한 양 품을 잡던 이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공격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한 중학생이 만든 일본문화 애호 사이트는 이들의 떼거리 공격을 받아 초토화가 되고 말았다. 공격할 때 이들은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햏햏 아햏햏햏” “고구마 장사 하려는데 100원만 주세요” 처럼 밀도골도 없는 문장을 한없이 실어날라 상대방 서버를 다운시켜 버린다. ‘서버 다운 실패=패배’를 의미하므로, 웬만해서 쓰러뜨리기 힘든 상대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불문율이기도 하다.

결국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폭력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쓰레기 같은 인터넷 문화에 염증을 느꼈다는 이들이, 이전 세대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만 여겨진다. ■■■■